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신명기 29:29; 미가 6:8; 사무엘상 15:22; 누가복음 10:28

질문 1: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심이 있는 것인가?

질문 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인가? 어떻게 보이신 것인가?

질문 3: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

질문 4: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질문 5: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 6: 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하는가?

설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 또는 재형성,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데,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구원의 관계안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관계는 서로가 요구의 대상이 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으며 믿음이 있음과 성장을 뒷바침하는 행위가 뒤 따라야하며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 완전히 죽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영적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하심을 사람에게 늘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물을 통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며, 자신의 요구를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으며,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글을 바위에 세겨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조물주가 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절대자 앞에서는 반문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얻었지만 죄성을 지닌 육체를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절대자와 조물주의 위치와 위엄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 우리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과연 불복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인 것이다.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제사는 원치아니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것인가? 순종은 예배드리는것 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복종이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적은 복종은 없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누구라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복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과 사랑을 연결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복종은 반드시 부담이 가게 마련이다. 부담없는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다. 복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댓가를 치르는 복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댓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종하려 할때에 진정한 복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복종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며 예배가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복종이 우리를 살린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이다. 넷째,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 다섯째, 영적 힘과 권위가 있어진다. 여섯째, 복종이 복종을 낳는다. 일곱째, 복종은 나에게 여유로움을 준다. 여덟째, 복종의 모습은 누가봐도 아름다운 것이다. 아홉째, 복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한다.